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blem of Educat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김 승 희*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

Instructor : Kim, Se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versity in the situ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regarding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to suggest rational ways of educat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6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ypically characterized by an international marriage in which a Korean male had married a non-Korean femal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tensive interviews over a course of three months and were analyzed by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d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 styles of educating children in Korean families and that they could not help their children do homework by themselves due to the limited personal relationships, the shortage of information about educating children, and an lack of organized education programs on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us, they solved these problems by depending on differ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us incurred a financial burden to support these activities. This led to excessive amounts of time and energy to earn the money to support the activities, which gave them few opportunities to acquire information on educating children by, for example, meeting with others. This explained their dependency on differ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their educating children. In an effort to seek ways to break this vicious circle, this study emphasized that policies related to educat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focus on helping multicultural families strengthen their abilities to educate their children fundamentally.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자녀교육(educating children),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 경제적 부담(financial burden)

I. 서론

2011년 1월 법무부가 발표한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는 2010년 12월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수가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사회가 바야흐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단일민족국가임을 크나큰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한국인들에게 사고의 틀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기존의 자신이 살아왔던 사회와 너무나 다른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며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승희 (E-mail : seuhkim@gwangju.ac.kr)

서 다수의 한국인들과 소수의 외국인들에게 제각각 해야 할 몫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는 13만 1천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여성 100명 당 남성이 9.6명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승권 등, 2010).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2008년에는 36,204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1990년 1.2%에서 2008년에는 11.0%로 증가하였다. 특히 국제결혼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08,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108,000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가 4% 정도이고, 14%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이 된 경우이고, 나머지 82%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인 전형적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다(김이선, 2009).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증하고는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문화적 소수자로서 기본적인 생계보장이나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김이선 등, 2006; 양계민 등, 2009; 오성배, 2005; 전경숙 등, 2007; 조영달, 2006; 조혜영 등, 2007), 이는 미숙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의 숙제를 점검하거나 학습 지도를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강조되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역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고 숙제하거나 준비물 챙기기가 어려운 점을 학교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전경숙 등, 2007; 전경숙 등, 2010). 전경숙 등(2010)의 연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46.2%가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3년 전의 38.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부모가 겪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전경숙 등, 2007), 다문화가족에게 자녀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면한 학업상의 어려움은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도와 한국어 실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스스로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문제를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자녀의 언어발달과 부모의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부진, 정체성 혼란, 학교 부적응 등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기인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되어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계민 등(2009)이 지적하듯이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이 부진한 것이 아님에도 그들 모두가 학교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학업성취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정일선(2006)의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7.7%가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른 일반 아이들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학습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전경숙 등(2007)의 연구에서도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수업참여도가 낮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고 대답한 교사는 28.1%로 긍정적인 대답이 훨씬 많았으며, 일반적인 우려와는 반대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수업준비와 수업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김이선(2009)의 지적처럼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를 언어발달과 학업능력에 문제가 있는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현재의 논의 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라도 부 또는 모의 출신국가, 학력, 한국 체류기간, 출신국가와 한국에서의 직업, 개인 성향 등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 또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즉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등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개별 다문화가족의 상황과 다문화가족 자녀 개개인의 성장 배경과 발달 정도, 부모의 교육 문화와 준비 정도 등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야말로 진정 다문화가족 자녀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부진이나 학교 부적응 등 자녀

교육과 관련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가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두면서 다문화가족이 자녀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녀 교육 방식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의 개별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각의 다문화가족이 처한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자녀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자녀교육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의 숙제 점검이나 학습지도를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 모임 등 학교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김이선 등, 2006; 조영달, 2006; 조혜영 등, 2007). 또한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의 약 20%가 기초수급대상자이고, 다문화가족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과 맞물려 다문화가족은 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임형백 등, 2009). 배은수(2006)의 연구는 부모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체육복을 사지 않고 친구들에게 빌려 입거나, 간식을 싸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야외체험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생활 실태를 조사한 전경숙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일반학생의 10.6%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20%가 가족의 경제상황을 어려운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의 교육비 부담은 한국의 사교육 열풍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부모들은 이러한 한국 교육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오성배(2005)의 연구는 중국이나 필리핀의 교육 문화가

한국과 달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중국보다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가 자기 나라에서 체득한 교육 문화와 한국 교육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한국사회 적응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자녀 교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의 한국어가 더 미숙하고 그 자녀들의 언어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성배, 2005). 전경숙 등(2007)의 연구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출신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높게 보고되었고, 부모와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을 덜 느끼며 부모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학교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교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다'(46.2%)는 점을 들고 있으며, '숙제하는 게 어렵다'(21.9%),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한다'(15.0%),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9.1%),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7.1%), '선생님이 불친절하거나 자신을 차별한다'(0.6%)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전경숙 등, 2010). 이는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보다 숙제나 준비물 등 학교공부와 관련된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더 많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업중단의 충동으로 이어져 중학생의 경우 42%가 그러한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경숙 등, 2010). 금명자 등(2006)의 연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9%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공부가 싫어서(10.1%)라고 답하였으며, 35% 가량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업 문제(11.6%)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5.8%)이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김갑성(2006)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61.8%가 '다른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이해해주고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달라는 것'을 자녀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민서(2007)와 박계란 등(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중 교사의 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여러 관련 기관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가정방문 아동양육지도도를 비롯하여 영유아 대상 미술 심리 치료, 언어발달지원, 방학 중 캠프, 방과후 공부방, 멘토링, 놀토 동아리 활동, 국제언어교실, 다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경우, 143곳 중 55곳에서 다문화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11곳에서 방과후 공부방, 2곳에서 멘토링, 4곳에서 문화체험 위주의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회성 행사로 축제나 캠프, 성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양계민 등, 2009).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성과 내용 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 관련 기관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주 적은 숫자로 근근이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하여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007년 12개 학교가 지정된 이래, 2008년에 10개 학교, 2009년에 42개 학교가 지정학교로 지정되어 한국어교육, 교과학습지도, 학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양계민 등, 2009).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멘토링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 초기 학교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현재는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과 또래관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였던 경기도 가평의 미원초등학교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언어 습득과 다문화 체험을 장려하고 소통의 원활함을 기반으로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양계민 등, 2009).

다문화가족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자조모임 등이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보건복지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09a), 다문화가족 아버지 프로그램(보건복지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09b),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여성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a), 생활지도 및 학교 입학준비 프로그램(여성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b) 등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 시작한 방문교육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한글교육과 양육지원, 애로사항들을 들어주는 것으로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김이선(2009)이 지적하고 있듯이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자녀의 언어발달과 부모의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모두 국제결혼으로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전형적인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16명으로, 참여자 모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들의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3개의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하는 2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개의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책임자로부터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다문화가족 중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동의하고 평소에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16명만이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이 된 경우를 선택한 이유는 김이선(2009)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82%가 이 유형에 속하면서 부 또는 모의 출신국가와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자녀교육 양상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가족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의 차이를 논하는 것보다는 같은 다문화가족 유형 속에서 나타나는 자녀교육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유형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유형 속에서 나타나는 개별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은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들의 한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료 수집

자료는 총 3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한 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표 1> 다문화가족의 인적 배경

어머니	출신 국가	한국 체류기간	자녀 수	자녀 나이	어린이집 시작 연령
A	베트남	5년	1명	5살	12개월부터
B	중국(한족)	8년	1명	8살	9개월부터
C	필리핀	12년	2명	12살, 11살	3살부터
D	베트남	5년	1명	5살	22개월부터
E	중국(조선족)	10년	2명	10살, 8살	큰 애는 5살부터 작은 애는 4살부터
F	필리핀	10년	2명	9살, 8살	5살부터
G	베트남	6년	2명	6살, 2살	12개월부터
H	일본	16년	3명	16살, 13살, 10살	5살부터
I	중국(한족)	4년	1명	4살	3살부터
J	중국(한족)	7년	2명	7살, 5살	6살부터
K	중국(한족)	7년	2명	7살, 4살	3살부터
L	필리핀	7년	2명	7살, 5살	3살부터
M	베트남	4년	1명	4살	20개월부터
N	필리핀	14년	2명	14살, 9살	5살부터
O	필리핀	7년	1명	7살	3살부터
P	베트남	4년	2명	4살, 2살	큰 애는 2살부터 작은 애는 10개월부터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는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이메일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전달하여 미리 답변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단체의 사무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한 명당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심층 면접에 소요된 시간이 다른 이유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몇몇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짧은 한국 체류기간 때문에 한국어가 미숙하여 길게 면접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면접 자료는 녹음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 바로 전사되었다.

심층 면접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의 양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개별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 자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자녀교육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자녀교육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바라는 바는 무엇이 있습니까?

3. 자료 분석

근거 이론의 표준적 형식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근거 이론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1단계 개방코딩에서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고, 쪼개진 자료를 잘 반영하도록 자료의 실체를 개념화한 다음 정보의 범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신경림 등, 2008). 2단계 축코딩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범주들을 연결하고, 3단계 선택코딩에서 축코딩 모델에 있는 범주들을 연결하여 다듬어진 이야기를 서술하는 식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신경림 등, 2008; Creswell, 1998).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먼저 개방코딩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분류되는 사건이나, 사물, 행동 또는 상호작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개념화된 여러 현상들을 몇 개의 범주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장 논리적으로 묘사하면서 여러 현상들을 좀 더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Strauss & Corbin, 1998) - 에 묶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80개의 개념과 30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흩어져 있던 자료를 재조합하고, 현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기 위해 범주들을 연결하였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에 의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현상의 전후관계를 설정하였다. 특히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조건들과 전략, 결과라는 구성 요소를 가진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마지막

선택코딩 단계에서 연구의 주된 주제를 의미하는 핵심 범주를 결정하고, 범주들을 통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3단계 코딩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한 후, 연구자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와 잠정적인 해석을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석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절차인 '연구 참여자 점검(member checks)'(Merriam, 1998: 204)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이메일로 자료와 잠정적인 해석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한 후 연구 참여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석이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자료에서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잠정적인 결과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비평을 참조하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g)'

(Lincoln & Guba, 1985: 243)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여러 오류를 수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개방코딩 과정을 거친 결과 <표 2>와 같이 80개의 개념과 30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2>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개념의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모임에서 공통의 화제 부재 · 대화의 내용에 대한 부분적 이해 · 한국 엄마들끼리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소외 · 직장 생활로 인해 참여할 시간 부족 · 다른 학부모로부터 얻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미흡 	학부모 모임에 소극적 참여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들끼리만 만남 · 한국 사람과의 인적 교류 미미 ·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경우에만 의사소통 	제한된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에 대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정보 부재 · 자녀교육을 엄마의 몫으로 생각 · 남편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지원 부족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말하고 듣는 것은 가능하나 읽거나 쓰기가 힘들 · 한국어로 된 책이나 자료를 읽을 기회가 거의 없음 	미숙한 한국어 실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교생활을 예상할 수 없음 ·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 시 진학 지도를 할 수가 없음 ·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한국 학교생활의 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와 역사를 몰라서 자녀를 학습지도하기 힘들 · 한국의 역사를 배울 데가 없음 	체계적 교육기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맞벌이 불가피 · 한국에 친인척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상황 · 자녀교육에 할애할 시간 부족 	직장생활 불가피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부족 · 종교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부족 	모임에 제한적으로 참여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의존하여 정보 획득 ·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부터 정보 수집 · 한국어가 능숙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 	사적 관계를 통한 정보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홈페이지나 안내장을 통해 정보 획득 ·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경로에 대한 무지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 정보 수집이 용이한 소수에게 정부의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에 불만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 전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 기간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름 · 자녀의 학년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 다름 	체류 기간에 따른 다양한 교육 내용 필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수준의 한국어 교육 반복 · 읽거나 쓰기를 심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희망 	단계별 심화과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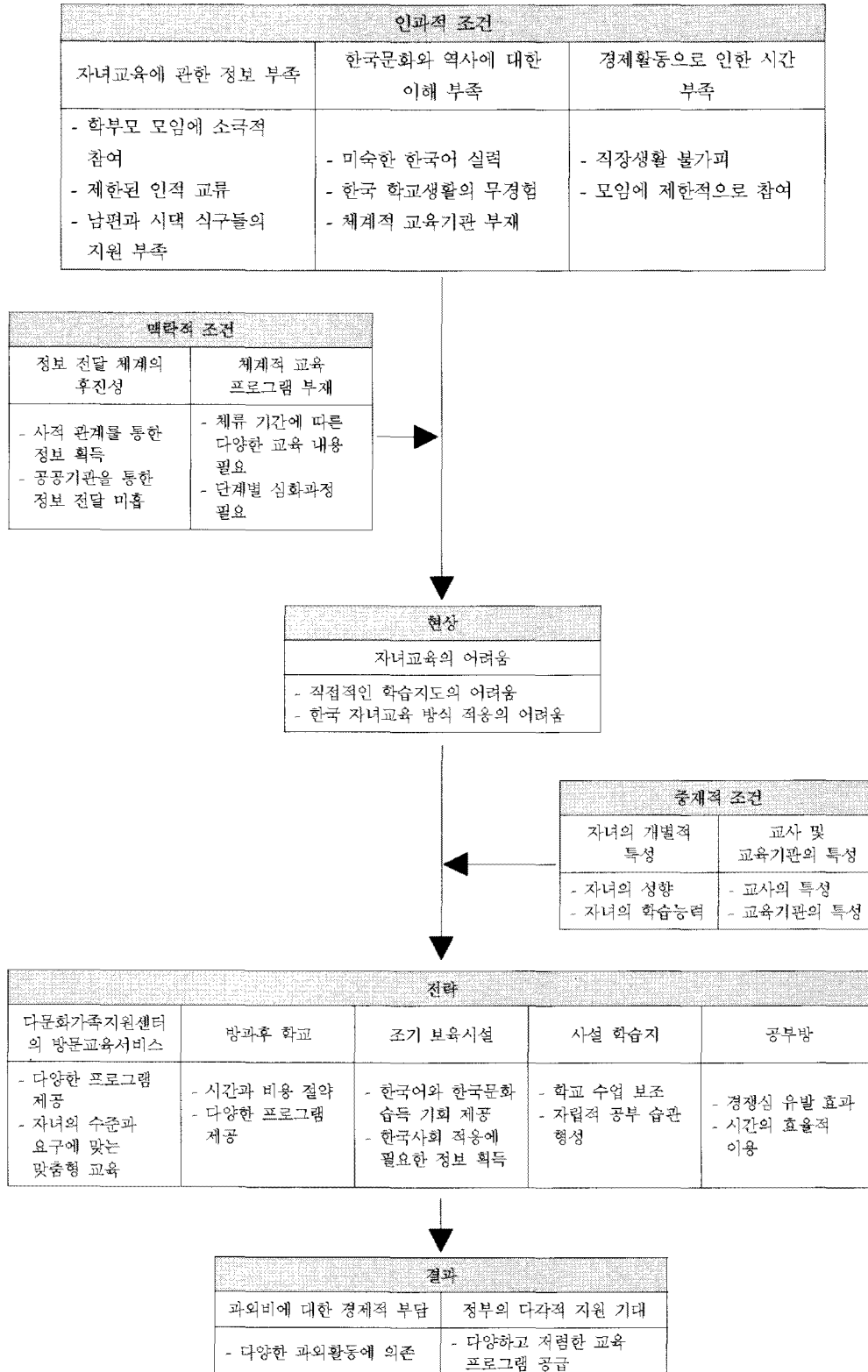
<표 2>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로 인해 학습지도할 시간이 없음 · 감정적으로 대하고 체근만 함 · 교과서 내용 이해 부족으로 지도가 힘들 	직접적인 학습지도의 어려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국에서 받은 교육과 한국 교육과의 차이가 큼 ·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함 · 사교육에 드는 시간과 돈에 대한 부담이 큼 	한국 자녀교육 방식 적응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인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큰 어려움 · 자녀의 성격에 따라 학습 방법 다름 	자녀의 성향	자녀의 개별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형제간에도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큼 ·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도가 다름 	자녀의 학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 · 교사의 인식에 따라 자녀에 대한 평가가 다양 · 교사가 다른 한국 아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교정 가능 	교사의 특성	교사 및 교육기관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시범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의 차이가 큼 · 학교가 성적을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다름 	교육기관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 방문 기간 연장과 이용 기회 확대 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수준에 맞는 학습 지도 ·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개별 자녀의 다양한 욕구 충족 · 방문교사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높은 만족 	자녀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 가능 · 다문화가족에게는 한 과목이 무료로 제공되어 비용 절감 	시간과 비용 절약	방과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선택의 폭이 큼 · 아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함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이른 나이에 보육시설 이용 · 취학 후 미숙한 한국어로 인한 불이익을 조기에 예방 · 한국어 교육에 대한 유일한 대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 기회 제공	조기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따 당하는 것 없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기를 희망 · 한국인으로 살기를 희망 · 부모 대신 교사가 교육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불가피 · 짧은 교육 시간과 부모의 지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 	학교 수업 보조	사설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시간에 공부함으로써 규칙적인 공부 습관 형성 · 숙제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형성 	자립적 공부 습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모여서 공부함으로써 경쟁심 유발 효과 · 자기 관리 가능한 고학년에게 효과적 방법 · 성적이 향상되는 경험 	경쟁심 유발 효과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하는 시간을 줄여줌 ·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람 · 공부방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음 	시간의 효율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과외활동 불가피 · 과외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불가피 	다양한 과외활동에 의존	과외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희망 ·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대 ·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희망 	다양하고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 공급	정부의 다각적 지원 기대

2. 축코딩 결과

모형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고 재배치하여 <그림 1>의 결과가 산출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그림 1>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

1) 자녀교육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보통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한국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때문에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의 부족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도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애 키우다 모르는 것 있으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이 앞전에 생일 파티 한다고, 9월, 10월 같이 생일 파티하니까요. 저희 아들도 9월 달이어서 같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말고사고, 중간고사고 1학년 때 그렇게 본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공부는 어떻게 하고 방과 후는 어디 학원 보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과고 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데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나도 우리 아들한테 이 정도로 신경 써 주어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만은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낄 수도 없고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었거든요. 정보 같은 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P: 친하게 지내는 한국 사람들은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동네에 친한 사람은 다 할머니, 아줌마들은 다 일하러 나가니까. 가끔씩 만나면 인사하고 조금만 이야기해요. 집에서 아기가 어디 아픈지, 무슨 공부하는지, 저는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못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싶는데 자주 못 만나니까, 할머니들은 잘 몰라요.

A: 우리 남편도 많이 아는 거 없고, 시부모님도 시골에 사니까. 원래 시골하고 여기는 젊은 사람하고 완전히 의견이 달라요. 주로는 저 알아서 하고, 모르면 친구나 여기 센터에 와서 물어요.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어서 한국문화나 역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 지도를 해 주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어가 능숙한 참여자인 경우에도 힘들어하는 문제로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여기서 8년 동안 살았지만 얘기가 점점 더 커 가면서도 한국의 역사나 인물, 위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데, 조금 더 크면은 우리나라 위인이 누구누구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교육도 솔직히 더 필요한 거 같아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센터에서 조금조금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나 학원 식으로 엄마들도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O: 얘기가 학교에서 뭐 배웠다고 얘기했어. 근데 난 몰라. 그 단어는 몰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은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고,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모임에 참여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할 경우, 자녀가 홀로 집에 남아 TV나 게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퇴근 후에도 가사일 때문에 학습 지도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미숙하여 취업을 못하는 경우로 어머니가 집에 있더라도 학습지도가 어려웠으며, 아버지는 늦게 퇴근하여 자녀의 학습지도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B: 지금 혼자 집에 놔두는데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집에 혼자 놔두거든요. 학원도 가고 하는데 주로 TV 보고 한계가 있어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방과 후 2개 신청하고, 바이올린까지 하고 있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한 군데 가는데 거의 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거의 혼자서 있고 게임하고 TV 보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 혼자서 집에 있는데 걱정 많이 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얘기 따라서 가서 물건 훔치고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니까. 괜히 그런 것도 걱정되고 그래요.

L: 저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저는 대답도 못하고 얘기 아빠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기가 숙제 같은 게 있으면 저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2)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현상

현상은 “현재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일컫는 용어이다(Strauss & Corbin, 1998: 130).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인과적 조건 -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한국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 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중심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자녀교육 방식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범주는 오성배(2005)와 조영

달(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교육 문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D : 저는 이제 5살이니까 2년 후면 초등학교 보내니까, 보내서 뭐 하는지 우리 학부모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N : 우리가 다녔던 모국의 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국이라면 아이들을 보낼 때 엄마들이 어느 체계가 있어서 준비도 되는데 여기 한국 초등학교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F : 우리나라 입학하는데, 뭐, 옷이나 가방이나 책 준비하고, 혹시 학부모 모임 있으면 가고. 애기들 알아서 공부하는데, 한국식대로 학습 같은 거는 같이 와서 엄마는 애들 해주는 식으로. 애기도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요.

E : 학교에서 애들이 충분히 배워왔으면 엄마들이 그런 학습 지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엄마들이 한국어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한국식의 지도 방안도 잘 모르는데, 한국 엄마들은 다 지도를 해 주시는데, 우리 애들은 선생님을 불러줘야만 진도가 나가지. 한국말 잘 하는 나도 마찬가지로, 한국말 잘 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거는 틀려요.

또한 직접 학습을 지도하는 것의 어려움이 두 번째 하위범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숙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의 숙제 점검이나 학습지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교육의 어려움으로 지적한 김이선 등(2006)과 조혜영 등(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가 능숙하여도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 : 한국에서 저희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상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부딪혀야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같아요. 초등학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간단 하지만 엄마는 긴장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체계가 학교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는 이렇게 공부를 하구나 이렇게 틀이 잡혀있구나 하는 게 이제야 좀 느껴지는 거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모르고 보내기만 했어요.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문제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공간에서 차원적으로 교차하는 조건들의 특수한 조합”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8: 132).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어려움의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정도’로서 ‘약함’과 ‘강함’에 따른 차원으로 나타났다. 즉 아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사적인 관계에 주로 의존해 정보를 얻는 것은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던 시기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경우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부재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K : 의료 부분이나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게 되고, 주변에 앞 집, 뒤 집에 물어보기도 되고, 교회 식구들한테 전화하기도 하고요.

H : 그리고 다 똑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받았어, 다른 사람은 못 받았어. 예, 그런 거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으니까. 옆에 친구가 했다하는 것 듣고, 아, 그래, 하면서 가서 달려가서 할 수 밖에 없고. 저도 작년에 한 번 공짜로 방과 후 학습 받을 수 있다는 것 듣고 이야기 해 봤더니, 다문화가 아니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어느 집이 다문화인지 아닌지 조사도 안 하고, 다문화가 아니다. 보면 호적 등본에 그런 거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조사도 않고 아니라고 대화가 안 되고 좀 화가 났죠.

B : 저는 한족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가르쳐 주는 데 없었어요. 2002년도에는 가르쳐 주는데 없어서 텔레비전 보고 따라서 하고 남편 책 사다주면 큰소리로 또박또박 읽고 노트에다가 중국 글자, 한국 글자 쓰고 외우고 그랬어요.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거나 바꾸는 조건들을 말하며, 종종 행동이나 상호작용의 형태를 통하여 반응되어야 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 일어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어려움은 자녀의 개별적 특성과 교사 및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어려움의 정도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자립적이고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데 힘들어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이 겪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교육기관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해결하고 있었다.

자녀의 개별적 특성의 경우,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자녀

부터 발달 정도가 뛰어나 교사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녀까지 다양하였으며, 성향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녀까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형제간에도 성향이나 발달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가 경험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에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C: 저는 큰 애는 문제 없구요, 다른 학습 같은 거는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고. 근데, 우리 작은 딸은 조금 늦어요. 우리 작은 딸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 했구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 치료 받아요, 지금까지.

D: 다른 애기들은 12개월이나 13개월이면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는 21개월에 걷기 시작하고. 다른 애기는 한 세 살이면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는 작년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말이 별로 없고, 지금도 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H: 아이의 성격에 맞는 것이, 학원이 맞는 아이가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 아이가 있고 하나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교사의 특성으로는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정도에 따라, 교육기관의 특성으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의 프로그램이 학습 위주인 경우에 부모와 자녀 모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I: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외국인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좀 무시하는 것 같애, 그래서 나도 그 선생님 안 좋아해. 한국 엄마들 가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예요. 가끔씩 그러는데 비교하면 그래요.

J: 지금 유치원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큰 애가 많이 힘들었어요. 알림장을 처음에 가져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안하고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에서 써 주어서, 받아쓰기도 어린이집에서 두 번 써 주었어요, 연습해라, 내일 받아쓰기 한다, 그런 식으로 가져오는 데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안 해줬어요. 받아쓰기 하면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받아오니까 애가 기가 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자주 갔어요. 선생님 전화 자주 오고,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상담하고, 선생님 제가 뭘 뜻인지 몰라 가지고 못 가르쳤다고, 선생님이 그때 다 설명해 줘가지고 그때 알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연습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늘었어요.

C: 다문화는 무료로 한 과목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는 시범학교라서 다 무료예요

5) 전략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나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목적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방과후 학교, 조기 보육시설, 사설 학습지, 공부방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전략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는 자녀의 발달정도과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연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연구 참여자 모두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자녀교육 방식 적용의 어려움과 직접 학습을 지도하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하위범주를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중심적인 현상인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방문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의 학습능력에 맞는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A: 방문해서 일일이 옆에서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상 어디 가서 애기 데리고 다니는 게,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디 찾아가기도 힘들고 차라리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한 시간이 되니까요. 2시간 동안 엄마 한국어 교육 한 시간 정도 가르쳐 주면은 애기들도 한 시간 해 주고, 집의 형편에 맞게, 계속 공부 가르치는 것도 지루하니까 뭐 만드는 것, 정보 같은 것도 해 주니까, 되게 지루하다는 생각은 없죠.

두 번째 전략인 방과후 학교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 과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인 학습지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한 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맥락적 조건에서 언급된 정보 전달 체계의 비조직성과 중재적 조건의 하나인 교육기관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B : 다문화가족의 경우 방과 후 학습 하나는 무료로 다닌다는 데 들은 적 없어요. 학교마다 틀린 거 아닌가요? 지역마다 지원해 주는 게 틀려서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가 그런 데 관심 있으면 그런 쪽에 있지만은 그런 데 관심 없으면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같아요. 바이올린은 8만원 정도 하구요.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은 수학하고 영어는 한 과목당 3만원씩 하고 있어요. 총 14만 원 정도 들어요.
- E : 예, 방과 후 학교에서 컴퓨터 하구요, 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하고 있고요, 딸 같은 경우는 POP하고 있어요. 영어는 영어 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 C : 방과 후에서 영어, 컴퓨터, 미술, 작년까지는 세 개 다 했는데 남은 게 컴퓨터하고 미술.

세 번째 전략인 조기 보육시설의 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의 자녀교육 방식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교사와 교육기관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 A : 아기는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다문화니까 한국어 못 할까봐 12개월부터 보냈어요. 너무 일찍 보냈으니까 아기가 어린이집 갔다 온 후에 옷 벗은 후에 울었어요. 근데 엄마 말 안 되니까 아기는 말 빨리 배우게 하고 싶어서 어린이집 일찍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보냈어요. 어린이집 오랫동안 보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 가기 싫어해요. 가끔씩 엄마한테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말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 하고 잘 지내고 다른 건 말 안했는데 그냥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왜 싫으냐고 물으면 '엄마 없으면 어떡해'라고 말했어요.
- B : 남자인데 9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었어요. 저는 공부도 하고 직장에 취직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일찍부터 혼자서 있는 습관을 빨리 들여놔서 지금 혼자 있는 거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번째 전략인 사설 학습지의 이용은 직접적인 학습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자녀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사설 학습지의 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만 지도가 이루어지고 숙제의 대부분이 부모의 지도를 요구하는 것들이어서 직접적인 학습지도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와 상반되기 때문이었다.

- J : 학습지 시켜 봐도 솔직히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애들 머리에 다 안 들어가요. 하루 했는데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이 바쁘면 자세히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끊었어요. 한 달에 10만원까지 나가는데 늘어난 게 보여야지 보이지 않으니깐 안 시키게 돼요. 사실 학습지 하고 싶어요. 20분 만에 끝나버려요. 어떤 선생님은 잘 해요. 어떤 선생님은 잘 안하고. 처음에 제가 한 선생님은 잘 했어요. 어제 배운 것 뭐든지 몇 번 반복학습 해 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안 해 주니까 선생님을 몇 번 바꿨어요.

- B : 근데 지금 학습지 2년 넘게 시켰었거든요. 한 달에 그때 3만 5천원 해 가지고 두 가지에 7만원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선생님 진짜 와서 정말 10분, 15분밖에 안 계세요. 그것도 엄마가 옆에서 앉아 있으면 그 정도 있지, 오면 숙제 딱딱 체크하고 이거 이번 주 꺼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 하는 거예요. 저도 밖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테이프 많이 틀어주고요, CD 많이 틀어주고요. 어디어디는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책임감이 없다. '내가 차라리 공부를 다 시킬 수 있으면은 선생님이 집에 와서 굳이 가르칠 필요까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만 두게 됐거든요.

마지막 전략인 공부방 이용은 같이 공부함으로써 경쟁심이 유발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기관리가 가능한 고학년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약한 재정과 인력으로 인해 학습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부방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대책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F : 우리 애는 막내가 공부방 다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애들이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 방문 선생님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공부방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은 안 맞아. 학교 끝나면 컴퓨터 공부하고 컴퓨터 끝나면 학원 공부 2시간, 3시간 인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 H : 저는 방문교사 안 해 봤어요, 6학년이라서. 오히려 공부방 가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 E :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놀러가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가봤어도.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아이들 숫자도 많고 무료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흩어져 있더라구요.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고 노는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런 무료 시설을 보내고 싶어도 그게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료지만은, 가면 애들이 그냥 멍쳐서 공부하고 놀고 제대로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6) 결과

결과는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를 의미하며(Strauss & Corbin, 1998: 128), 그러한 행동이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또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실패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전략들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방과후 학교, 조기 보육시설, 사설 학습지, 공부방 등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전략들은 자녀와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의 직접적인 학습지도와 한국 자녀교육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과외활동에 의존하여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과외비를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줄이고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줄여 학부모 모임과 같이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결국 자녀교육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을 유발한 인과적 조건들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근원적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채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L :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면 한 달에 얼마 딱딱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같이 벌어야지, 애들이 내년에 학교 가면 1학년은 빨리 끝나서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보내도 부담스러워요 우리 애들은 지금 종일반 해요 친구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와서 우리 집 근처 학원이 있어, 거기서 유치부 애들도 받아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또 학원가요. 한국 엄마들은 정말 많이 가르치는구나. 피아노도 배운다 하지 태권도도 보낸다 하지, 저는 그런 형편 안 돼 가지고 그런 거 못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종일반만 시키고 있어요.

또한 근원적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직접적으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과외활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즉 체류 기간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다문화가족 스스로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녀교육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재정적 지원에 의한 다양하고 저렴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되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자녀교육 방식을 다문화가족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 : 스스로 습관 되어 있는 아이는 방문 교육 받고, 그걸로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이 효율적이고 좋을 거 같고, 근데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공부하면 경쟁도 있으니까, 친구보다 잘해야 되겠다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방 같은 것 가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고. 그러니까 다문화니까 이거 해야 하는 것보다, 그, 똑같아요. 다문화 아이들도, 한국사람, 부모가 한국 사람인 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3. 선택코딩 결과

Corbin과 Strauss(2008)가 제시한 핵심 범주의 여섯 가지 준거 -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 자료에 자주 등장,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 이론을 함축, 이론이 단계적으로 진척,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 - 에 따라 핵심 범주를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모색’으로 결정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체계나 학교생활 등 교육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체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부모 모임도 직장 생활 때문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거나 참석하더라도 다른 한국 엄마들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번 참석한 이후 거의 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획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과 읽기와 쓰기 위주의 심화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제한된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교육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가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해 학교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자녀를 이른 나이에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었으며, 학습 진도를 맞추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사설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와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등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성격과 학년, 또래와 비교해서 드러나는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가 노력하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개별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결국 다문화가족은 직접 자녀의 학습지도할 수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을 다양한 과외활동에 의존하면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문화에 적응하면서 자녀가 낮은 학업성취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다문화가족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인한 과외비의 부담은 다문화가족을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줄이고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근거 이론을 이용하여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 해결 방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과 관련한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이 주로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숙제를 제대로 봐 주지 못하여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원인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개별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녀와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각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 미숙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은 한국어가 능숙하여도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 이론적 접근에 의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주제인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이 처한 상황은 중심적인 현상으로 직접적인 학습지도와 한국의 자녀교육 방식 적용에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한국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라는 인과적 조건들에 의해 유발되고 있으며,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맥락적 조건들에 의해 그 정도를 달리 하고 있었다. 즉 친구나 친지와 같이 사적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을수록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이 강하여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도 낮고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획득의 기회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녀와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 학교와 같은 다양한 전략적 행동들을 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 문제를 다양한 과외활동에 의존하면서 과외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경제활동에 매달리게 되면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유발한 인과적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한국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이라는 인과적 조건들에 의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국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한국어가 미숙하고 직장생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만남이 없다보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도 한국어 실력은 정체되고 자녀교육 정보로부터 멀어지는 등 계속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에 대한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핵심 범주로 제시된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빈번하

게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맥락적 조건으로 제시된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속성과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적 관계에 의존해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이 정보 전달 체계의 후진성이 강할수록 한국 사람보다 같은 출신국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입국 시기가 오래되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의 정도가 강했던 경우일수록 한국문화와 역사 공부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지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이 공공기관을 통해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부모교육을 통한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조혜영 등(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재적 조건으로 제시된 자녀의 특성과 교사 및 교육기관의 특성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과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을 연구 참여자 모두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연구 참여자 H는 자녀가 6학년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방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자녀의 성향과 발달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달랐으며,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나 교육기관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학습 위주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음으로써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반면 다문화 시범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녀교육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와 교사,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과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오성배(2005)와 조영달(2006)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교육 문화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자녀가 원치 않는데도 이른 나이에 보육시설에 보낸다든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외활동을 시키는 모습에서 힘들어 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화와 역사에 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의 부재로 다문화가족은 문화적 단절을 극복할 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직접적인 학습 지도의 어려움을 여러 학습 보조 수단과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서 과외비의 부담을 가지게 되고 다시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조혜영 등(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이 사교육비로 나타났으며, 옥경희와 박미정(2009)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사교육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결국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학부모 모임과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그럼으로써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로부터 멀어지는 등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인과적 조건들이 재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가족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각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이선(2009)이 지적하고 있듯이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를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현재의 논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에는 자녀의 개별적 특성과 교사 및 교육기관의 특성과 같은 중재적 조건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립적으로 학습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학습지만을 제공해 주어도 학업을 무난히 수행하였으나, 자녀의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우관계와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사적 관계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정보량의 차이가 생기며 한국에 입국한 시기에 따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정도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는 각 다문화가족의 개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과외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외활동에 대한 의존은 직접적인 학습지도를 원활히 해 주지 못함으로써 자녀의 성적이 저조할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사교육 열풍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자녀교육 방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이 자녀의 학습지도를 직접 할 수 있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

감을 가지는 것에 의해 근원적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스스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주로 가까운 친지나 같은 출신국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학부모 모임과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이라는 심리적 위축감과 공통의 화제가 없고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것과 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는 다문화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체류기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녀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부모의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우며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와 역사, 입시제도와 학교환경,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육아상식,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부모의 문화적 단절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 다른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양계민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의 탁월함으로 귀결되어 뛰어난 사회적 역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었다. 선택코딩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교육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즉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외활동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과외비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고 이것

이 다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줄이면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 자녀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개별 다문화가족이 처한 상황과 자녀 개인의 성향이나 학습성취도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 자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중심을 두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다문화가족 자녀 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몇 퍼센트가 자녀교육의 이런 점을 어려워하고 몇 퍼센트가 저런 점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양적 연구에서 보여주는 논의 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스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자녀의 학년이나 성향, 지역, 교사, 교육기관 등 자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과 방안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좀 더 다양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다문화가족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근거한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금명자 · 이영선 · 김수리 · 손재환 ·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 실태조사 및 교정 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숙 · 공진희 · 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금자(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베트남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혜련 · 이해경 · 설동훈 · 정기선 · 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2009).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의 과제. 젠더리뷰, 가을호, 11-18.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계란 · 이지민(2011).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89-100.
- 박민서(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민정 · 이병인(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 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5(1), 129-151.
- 배은수(2006). 한국 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9(2), 25-55.
- 보건복지가족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09a). 부모자녀 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자료집.
- 보건복지가족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09b). 다문화가족 아버지 프로그램 자료집.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2008).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 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a).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료집.
- 여성가족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b). 생활지도 및 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자료집.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2-83.
- 옥경희 · 박미정(2009).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초등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 YMCA.
- 유재신(2008).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범관(2009).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현장토론회 보고서. 2009년 정책자료집 II.
- 이종일(2007). 베트남 한국이주여성들의 다문화적응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경인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형백 · 이성우 · 강동우 · 김미영(2009). 한국농촌의 다문화 사회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6(4), 743-773.
- 전경숙 · 임양미 · 양정선 · 이의정(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경숙 · 정기선 · 이지혜(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 서덕희 · 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 학생의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Corbin, J. M., & Strauss, A. L.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Creswell, J. W. (1998).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공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접수일 : 2011년 01월 31일

□ 심사일 : 2011년 05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22일